

새로 나온 詩集

두고가는 길

신용선 지음

86년 「심상」 신인상에 당선, 문단에 데뷔한 시인의 첫시집.

50편의 시들이 「작은 겨울길」 「어둠은失明하지 않는다」 「風水說」 「戀歌」 「告解」 등의 5부로 나뉘어 실려 있는데, 초월자어로 전이되는 사랑의 체험이 절제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죄의식의 토로를 거쳐 획득된 시인의 '마음의 넓이'를 보여준다. 권말에 시인 홍신선씨의 해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학아카데미 / B6신 / 116면 / 2500원

키플링 시선집

루드야드 키플링 지음

영국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시인이자 소설가인 키플링의 시선집.

전4부로 구성, 삶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을 보여주는 시들을 비롯해서 병사들의 애환과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열정과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권말에 키플링의 연표와 제목의 한·영대조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하늘땅 / A5신 / 174면 / 2500원

용의 모습으로

박남철 지음

79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한 이래 「地上의人間」 「반시대적 고찰」 등의 시집을 발표하면서 80년대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시인의 제3시집.

김광규, 최승자, 이승훈, 김지하, 이운택 등 기존시인들의 발표작품들을 시의 일부분으로 차용, 그에 대한 시인 자신의 평을 담은 31편의 '비평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청하 / B6신 / 116면 / 2500원

미명의 저쪽에서 반짝이는 등불

姜南周 지음

「시문학」추천을 통해 등단, 현재 부산수산대 교수로 재직중인 시인의 신작시집.

“우리 둘은 사랑하면서 / 우리 둘은 끝없이 의심하면서 / 우리 둘은 쉬지 않고 질투하면서 / 우리 둘은 불안하다”는 ‘쓸쓸한 우주’로서의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사람과 사물과 삶을 위해 노래해야 하는 시인의 아픔을 담담히 진술하고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님에게로 가는 길

석벽송 지음

88년 「시와 의식」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한때 佛家에 몸담았던 시인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등 한스럽게 살다간 俗家의 여인들에 대한 추억과 환속 이후 가정을 가진 한사람의 여인으로서 시인 자신의 삶을 그린 60여편의 시들이 시인 박찬씨의 해설과 함께 실려 있다.

자유사상사 / B6신 / 146면 / 2500원

백조의 노래

신동집 지음

아시아 자유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면서 그동안 「대낮」 「抒情의 流刑」 「해뜨는 법」 「自傳」 등의 시집을 상재했던 원로시인의 신작시집.

올해로 詩歷 45년째를 맞는 시인의 '생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이들 수록」 「삶의 길잡이」 「나락 걷는 사람」 등 총65편의 시들을 「춧불」 「왕릉이 보이는 길」 「명칭한 어둠」 「번두이는 강물」의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신원문화사 / B6신 / 140면 / 2000원

이대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

大安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85년 「참회록」 「번뇌」 「봉투의 입」 등으로 시단에 데뷔한 시인의 첫시집.

사사로운 자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일상적 번뇌를 초월하여 무의식적인 시적 의식과 경험, 그리고 불교적 見性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68편의 시들이 「번뇌」 「별」 「옛날 이야기」의 3장으로 나누어 시인 정공채씨의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각 / B6신 / 114면 / 2000원

세상을 쫓다

金芝鄉 지음

57년 「예술시보」로 등단한 이래 꾸준한 작품활동을 펴고 있는 시인의 제14시집.

“세상을 쫓아다니는 차가운 눈길에 도사리고 있을 뿐, 따뜻한 사랑의 노래는 한 소절도 없”이 “차가움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시인의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인간의 황폐화, 혼란화, 퇴폐화를 차분하면서도 실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42면 / 2400원

잠 속은 쓸쓸하다

김기택 외 지음

72년 결성된 이래 지금까지 28권의 동인지를 선보였던 「낙엽문학」이 강순례 · 김기택 · 박은주 · 배준석 · 원정섭 · 이덕원 · 이진호 · 진경희 등의 동인들에 의해 새롭게 「시울림」으로 변화, “특출난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지방 동인지에 의해 조용하게 문학의 저변과 저력이 확대됨으로써 그것이 언젠가는 또다른 커다란 문학의 ‘울림’을 낳는 모태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지향하는 시인들의 신작시 57편을 선보이고 있다.

동지 / B6신 / 102면 / 2500원

시힘 · 5

황학주 외 지음

8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 시동인 중의 하나인 ‘시힘’의 다섯번째 동인지.

황학주, 최영철, 정일근, 양예경, 안도현, 박철, 김백겸, 김경미, 고운기 등 기존 동인들과 이번엔 새로 참가한 나희덕, 김영철, 이운학의 신작시 55편을 선보이고 있다. “타락한 현실의 단단한 각질을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민중적 서정성’을 추구하는 동인들의 다양한 시편들과 함께 평론가 이경호씨의 평론이 수록되어 있다.

시민 / B6신 / 122면 / 2500원

조용한 슬픔

許英子 지음

62년 박목월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靚展」 「빈 들판을 걸어가면」 등의 시집을 비롯, 많은 수필집을 펴내기도 한 시인의 제5시집.

58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줄에 널린 빨래가 / 밤비에 젖고 있다 // 아아 추위라”(가을 · 1)와 같이 절제되고 정갈한 시어들과 세심한 운율의 조화가 돋보이고 있으며, 권말에 「많은 뜻을 적은 말 속에 담고 싶다」 등 시를 위한 산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6면 / 2400원

수정목마름

김호길 지음

67년 시조문학지 추천완료로 문단에 데뷔, 첫시집 「하늘 환상곡」 이래 15년만에 펴내는 시인의 제2시집.

일상성의 허무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內省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시편들이 현대시조의 다양한 형식실험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한편,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시인의 여행체험과 이민체험이 전면에 폭넓게 산재해 있다.

東學社 / B6신 / 122면 / 2000원

바람멀미

이규섭 지음

현재 국민일보 편집부에 재직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말의 가시에 허끝질린 / 수척한 낮달 / 어둠의 덮에 가시걸린 / 목젖이 아픈 침묵”으로 표현된 일상언어의 위태로움과 왜곡의 원인으로 “미사여구에 의해 시대를 수식하고... 거리마다 나무끼는 구호들이 역사를 모자이크하는”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침묵」 「산」 연작시를 비롯한 67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東海 / B6신 / 118면 / 2000원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

金成春 지음

74년 「심상」 신인상으로 데뷔한 이래 「신감각」 「절대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방어진 시편」 「흐르는 섬」 「섬 비망록」 등의 시집을 선보였던 시인의 제4시집.

바다와 섬, 포구, 바다새와 같은 이미지들로 구체화된 시인의 지순성에의 동경이 「바다생각」 「섬 · 비망록」 등의 연작시들을 비롯, 총80여편의 시속에 담겨 있다. “삶의 원초성으로 복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시인 이경호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사랑은 눈물 방울을 진주로 만들고

이연자 지음

크리스찬시인협회 회원인 시인의 신앙시집.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단상들을 깔끔하게 시화, 종교적 ‘사명’을 호소력있게 전달하고 있는 시집으로, 신의 세계로서의 자연에 대한 내면적 성찰의 모습이 돋보인다. 룻, 한나, 헤로디아, 아비가일 등 성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소재로 한 시편들과 함께 농촌출신 여성문학도의 삶이 반영된 전원시풍의 시들도 담겨있다.

바울서신사 / B6신 / 162면 / 2000원